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제도 개선 노력

유정복 시장, 피해주민과 면담 법령 검토 및 지원방안 모색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14일 시청을 방문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상황과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피해 주민들은 시에 긴급 주거지원, 경매 중지 및 면기 요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센터 설립,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는 만큼 관련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 등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리 긴급 자금 대출 지원'을 활용하도록 안내하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고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안내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안종삼 기자

안테나

부평구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실적 평가

부평구노인복지관이 경로당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여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알찬 노년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로당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총 48개 프로그램으로 4070회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시기 이후 회원들에게 알찬 정보 습득과 건강 증진활동 기회 제공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경로당 자체평가는 15일부터 경로당 회장 13명, 부평구 노인회지회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올해 경로당 운영 실적과 내년도 경로당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심사한다.

박혜련 복지지원과장은 "평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지원과 자립적인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여가 활용과 심신의 건강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활기찬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홍일 기자

인천시, 모범선행시민 거명 표창



인천시가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모범선행시민 71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달 1~30일까지 시, 군·구의 추천을 받았으며 현지 확인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활동, 지역사회 발전기여, 재능기부 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모범선행시민 71명을 최종 선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웃 사랑에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남다른 희생정신 덕분에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선행시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인천시, 도시디자인 지침 마련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 조성

인천시가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형 도시디자인 지침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수립된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인천의 디자인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 공간과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으며 선도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제도 및 법규 정비, 시민과 공무원 대상 공공디자인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과 공공시설물 및 경관 개선,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더 나은 미래 인천'을 도시디자인 비전으로 선정하고 5개 추진전략(△사람중심도시 △스마트디자인도시 △행복안전도시 △창조문화도시 △국제환경도시)을 적용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가로환경 조성 및 사업 운영체계 구축, 문화적 가치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IFEZ 외국인 김장 체험 & 나눔 행사' 펼쳐

인천경제청, 손수 담긴 김치 연수구 노인복지관에 전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센터에서 '2022 IFEZ 외국인 김장 체험 &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거주 외국인들이 김장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접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IFEZ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한 20여 명의 외국인들은 먼저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운 뒤 김장 김치 150포기를 담았다.

이날 만든 김장 김치는 연수구 노인복지관에 전달했으며 추후 무료급식 대상 노인 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한번쯤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센터에서 '2022 IFEZ 외국인 김장 체험 &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었는데 이런 기회가 마련돼 정말 좋았다" "처음에는 많은 배추 양에 놀랐지만 모두 함께 즐겁게 얘기 나누며 김치를 만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다" "내가 만든 김치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고 각각 말했다.

안종삼 기자

'접경지역·DMZ 인문학 포럼' 개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 제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13일 송도G타워에서 '접경지역·DMZ 인문학 포럼'을 개최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하고 접경지역 DMZ 인문학 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접경지역 DMZ의 풍부한 인문학 자원의 발굴과 교류 협력, 주민연대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환경 및 인문학 자원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남북 교류사업 및 협력사업 제안과 평화통일 교육의 방법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문경복 응진군수와 정현재 접경지역·DMZ 인문학포럼연합회 대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지자체 관계자 및 접경지역·DMZ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중환 기자

포럼은 1부 △접경지역·DMZ 지역별 인문학 사례 발표 2부 △접경지역·DMZ 인문학 자원조사 연구방안 △접경지역·DMZ 인문학 콘텐츠개발과 활동방향 2개의 주제발표 및 전문가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문학적 측면에서의 접경지역·DMZ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경복 응진군수는 "접경지역은 지속적인 남북 긴장 관계와 함께 각종 규제에 인한 저발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인식돼 왔으나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고 새롭게 접경지역에 주목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접경지역의 인문학 문화자산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접경지역을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미추홀구, 2년 연속 선정 '깨끗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규정 운영'

미추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 순위를 부여했다.

미추홀구는 사전정보공개율, 원문공개

율,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고객관리 4개 전 분야에 걸쳐 기초 자치구 유형 평균보다 8.08 점 높은 93.18점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 정보공개 청구 이용 고객 만족도, 사전 정보 공개 충실성, 원문공개율에서 고득점을 받아 정보공개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평가받았다.

이영호 미추홀구청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환 기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 시장 표창 수여

인천시, 한림병원 등 4개소에 확진자 치료 중추적 역할 기여

인천시가 15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한 4개 전담병원에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은 시 지역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중 검단담병원·뉴성민병원·부평세림병원·한림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은 △코로나19 대응행시 기

반진료 시스템을 중단하고 전체 병상을 소개해 확진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전환 △24시간 비상 운영체계 가동 △지역 중증환자·와상환자·소아환자 및 투석 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환자들을 적극 수용해 확진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 접종센터, 재택치료 관리 병원 등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방안 마련

인천시는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 시민 공청회를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인천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김윤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김재영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회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인천시의회 시의원, 정찬홍 인천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토론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윤승 연구위원은 인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규모, 사업유형, 사업절차로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개최



인천시는 인천시광역시치매센터와 함께 15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2022년 인천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전대회는 올해 치매관리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치매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천시와 인천광역시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사업성과를 공유했으며 계양구치매안심센터의 '지역사회 약국과 함께하는 치매친화환경마을 만들기' 사업이 민간 협력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지역사회 돌봄역량 강화를 위해 치매관련 공공기관(시립치매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건증 돌봄기법인 휴머니티를 교육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